정하영(KBS 촬영감독)

안나푸르나를 오르면서도 중계방송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아직도 피곤함이 남아 있다. 하지만, 산을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강한 에너지가 흐른다. 사람 사는 냄새가 좋아 다큐멘터리에 빠져들고, 카메라를 짊어지고 안나푸르나를 오르면서도 방송을 걱정하는 마음을 보면서 진정한 방송기술인의 모습을 보았다. 방송이 원한다면 다시 고산을 오르겠다는 차분하고, 진중한 목소리에서 방송인의 강한 결의를 느낀다.

힘든 촬영을 다녀오셨는데 주변의 반응은?

가족들은 항상 한결 같죠. 건강히 사고 없이 무사하게 돌아와 준 것에 기뻐하고, 동료들은 고생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촬영감독들의 위상이 더욱 높아진 것 같다는 말로 마음을 뿌듯하게 하더라고요. 정말 고생했고, 힘든 일 잘하고 왔다는 감사의 전화 많이 받고 있어요.

출발 전의 준비는?

고산을 오르는 것이 처음은 아니고, 작년에도 4개의 산을 3차례나 갔었어요. 아쉬움을 뒤로하고 경험은 몸에 익혀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올 1월부터 준비했어요. 우선, 체력훈련에 집중했어요. 자전거 타기로 다리의 힘을 강화시키고, 수영으로 폐활량을 높여 고산등정에 도움이 되도록 훈련했어요. 그리고, 여러 산들을 등산하면서 등정을 떠날 수 있도록 몸 상태를 끌어 올렸어요.

방송장비에 대한 걱정은 없었는지?

카메라 장비에 대한 걱정은 크게 없었는데, 과연 중계장비가 강추위 속에서 문제없이 작동될지가 걱정이었어요. 카메라는 대용량으로 예비배터리까지 3개를 챙겼고, 추위 속에서 촬영시 발생할 문제점을 경험으로 가늠해 볼 수 있었는데, 송출장비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더욱 신경이 쓰였어요. 고산등정을 출발하기 전에 송출장비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도 현지에서는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서 마이크로웨이브를 갖고 이동하면서도 중계에 대한 걱정이 계속 됐어요.

추위 외에 고통스러운 것은?

배고픔. 마지막 정상을 오를 때는 물외에는 아무 것도 먹지 않고 올라갔어요. 간단하게 간식 정도를 먹는데, 아마도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높은 고도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밥을 짓고 먹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면 체력저하가 올 수 있고, 일기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 같아요. 차 한 잔 마시고 13시간 정도를 정상을 향해 걷는데, 와아~(^^) 태어나서 배고픔을 뼈저리게 느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장섭 · 방송과 기술 기자

+ 정하영 – 안나푸르나를 오르면서도 중계방송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다

정상에 올랐을 때의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정상에 올라서 좋았다기보다는 정산에서 내가 촬영한 영상물이 중계기를 통해 한국에 있는 시청자들이 방송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정상에서 태극기를 들고 포효하는 오은선 대장과 정상의 멋진 풍광을 카메라로 담고 있는 촬영감독이 됐다는 게 큰 행복함을 안겼어요.

산을 오르면서도 오로지 방송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어요. 좋은 영상을 담고, 중계기가 아무런 문제없이 작동하여 방송이 잘 돼야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그런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지니까 그 기쁨을 뭐라 표현할 수 없더라고요.(^^)

고산에서의 촬영은?

고산을 등정했던 경험들이 많은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작년에 등정에 도전하면서 앵글을 어떻게 잡을지 구상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됐어요. 오은선 대장이 앞에서 리드할 때는 뒤에서 오르는 모습과 풍경을 담았고, 오은선 대장이 쉬는 동안에는 앞질러 올라가 밑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영상으로 담을 수 있었어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영상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어요.

다음에도 고산등정에 도전할 것인지?

제일 대답하기 힘든 부분인 돼요. 사실 가고는 싶지만 한편으로는 깊이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다만 높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후배들과 같이 현지에 가서 일부 구간만 오르더라도 그 경험을 선물해 주고 싶어요. 산에 오르는 것은 정말 몸으로 체험하지 않는 이상 뭐라고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자연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여러 경험이 생기면서 영상을 어떻게 담을 지도 자연스럽게 고민하는 거거든요. 아마도 저를 원하고 필요로 한다면 또 오를 거예요.(^^)

감독님에게 다큐멘터리란?

사람 사는 냄새가 나잖아요. 모든 환경의 생명체가 사람과 유사한 형태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그런 자연스러운 자연현상도 좋고, 그 자연을 바탕으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도 좋아요. 어우러짐이 있는 생명체의 자연스러움 삶의 모습이 다큐멘터리를 지금까지 하게 한 원동력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마음이 쉽게 변하지는 않을 것 같고, 행복한 어우러짐 있는 곳에서 사람 사는 냄새가 있는 좋은 영상들 많이 담고 싶어요.

가족에게

어머니는 살아와줘서 고맙다고 안고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이 진정되시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위험한데는 가지마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느덧 10년 전부터 다니고 있어서 산에 가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구나 하고 생각해 주고요. 저를 믿어주는 가족에게 항상 고마워요.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밝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사랑한다."